



편의점 자영업 운영 및 노동실태와 개선과제

— 서울지역 편의점을 중심으로 —

김종진(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1. 편의점 자영업 ‘장시간 노동’ 문제

- 1989년 5월 6일, 1년 365일, 하루 24시간 내내 물건을 파는 편리한 가게가 서울에 생겼음. 당시 언론은 ‘구미식 구멍가게’, ‘심야 만물 슈퍼’란 별칭을 붙여 이 가게를 소개했고, 바로 이제는 익숙한 30년전 편의점(CVS, Convenience Store)의 시작임.
 - ‘편의점 왕국’으로 불리는 일본에서 1974년 5월 15일 도쿄 고토(江東)구에서 세븐일레븐 1호점이 처음 문을 연 이후, 편의점은 일본인의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불가결한 존재로 자리를 잡고 있음.
- 세븐일레븐은 1927년 미국 텍사스 달라스에 생겼던 세계 최초의 편의점 브랜드 명칭임. 미국에서 처음 오픈 때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영업한다는 뜻으로 ‘세븐일레븐’이라고 상호를 정했지만, 이후 거짓말이 된 것임. 24시간 내내 영업을 했음.
 - 우리 나라에서도 대형마트 영업일과 영업시간 규제(24시 이내 영업점 폐점)가 논의되면서 편의점도 사회적 논의가 되기 시작했음. 최근에는 중소기업인과 경제민주화 시민단체들이 편의점 자영업 생존과 건강권을 위해 영업시간 규제를 논의하고 있음.
- 최근 신세계 이마트24(前 위드미)는 출범부터 ‘365일 및 24시간 영업을 없는 편의점’(가맹점주를 위한 편의점)을 표방하였음. 이와 비슷한 형태로 이미 유럽은 유통이나 상점 관련 영업시간 규제가 있음.
- 이 글은 2018년 1월, 서울지역 편의점 자영업 점주 951명을 대상으로 한 편의점 자영업 실태조사를 분석한 것임. 이를 토대로 편의점 영업시간 규제 논의의 필요성을 모색하며 몇 가지 대안적 방안을 제시했음.

2. 편의점 현황과 노동시장 실태 - 서울지역 실태조사 분석

1) 편의점 확장과 수익구조 바라보기

- 사실 지난 20년 사이 국내 편의점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프랜차이즈 수, 총 매출액 등은 지난 6년 사이 양적 성장을 한 것으로 확인됨. 2010년부터 2016년 사이 편의점 수는 15,674개 증가(2010년 16,937개 → 2016년 32,611개)했고, 총 매출액은 110,260억원 증가(2010년 83,981억원 → 2016년 203,241억원)했음.
- 국내 편의점은 대부분 프랜차이즈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매출 신장과 영업이익 또한 높은 편임. 반면 편의점 당 인구 수는 1,398명 감소(2010년 2,983명 → 2016년 1,585명)했고, 편의점 면적도 1.3평 축소(2010년 23.2평 → 2016년 21.9평)되었음.

[표 1] 국내 프랜차이즈 편의점 주요 현황 추이 : 2010년~2016년¹⁾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증감
전국 프랜차이즈 편의점 수(개)	16,937	21,221	24,859	24,859	26,020	28,994	32,611	▲15,674
편의점당 인구 수(명)	2,983	2,390	2,075	2,057	1,973	1,777	1,585	▼1,398
편의점당 평균 면적(평)	23.2	22.6	22.1	22	22	21.8	21.9	▼1.3
프랜차이즈 편의점 총 매출액(억원)	83,981	101,368	117,385	128,101	138,361	171,947	203,241	▲110,260

자료 : 한국편의점산업협회 내부자료 재구성(<http://www.cvs.or.kr>).

2) 편의점 운영은 누가, 어떻게 하고 있나?

- 국내 편의점 자영업 가맹점주는 남성(61.7%)이 여성(36.3%)에 비해 두 배정도 많았으며, 50대(41.9%)와 40대(25.4%)가 전체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음. 편의점 가맹점주의 절반(54.2%)은 위탁가맹 형태였음.

[표 2] 국내 프랜차이즈 편의점 가맹주 일반 현황

		성별		연령대					전체
		남성	여성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완전	빈도	242	134	9	71	102	142	52	376
가맹	비율	64.4%	35.6%	2.4%	18.9%	27.1%	37.8%	13.8%	100.0%
위탁	빈도	311	204	18	87	129	231	50	515

1) 2016년 기준 국내 편의점 상위 6개사는 34,376개이며, 이는 우리나라 인구 1,491명당 1곳(인구 5,125만명)으로, '편의점 왕국'으로 불리는 일본(인구 2,226명당 1곳)보다 인구 대비 점포 수가 약 1.5배 많은 상황임.

		성별		연령대					전체
		남성	여성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가맹	비율	60.4%	39.6%	3.5%	16.9%	25.0%	44.9%	9.7%	100.0%
독립	빈도	34	26	6	8	11	25	10	60
창업형	비율	56.7%	43.3%	10.0%	13.3%	18.3%	41.7%	16.7%	100.0%
전체	빈도	587	364	33	166	242	398	112	951
	비율	61.7%	38.3%	3.5%	17.5%	25.4%	41.9%	11.8%	100.0%

- 국내 편의점 자영업 가맹점주는 대부분 3년 미만의 운영(45.4%)이었고, 5년 이상의 편의점 운영은 37.1% 정도 었음. 독립창업형에 비해 완전가맹과 위탁가맹 편의점이 상대적으로 5년 이상 운영기간이 긴 편임

[표 3] 국내 프랜차이즈 편의점 가맹 및 점주 운영기간

		편의점 가맹 및 점주 운영기간						전체
		1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2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4년 미만	4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완전	빈도	38	63	42	29	33	171	376
가맹	비율	10.1%	16.8%	11.2%	7.7%	8.8%	45.5%	100.0%
위탁	빈도	69	105	70	50	47	174	515
가맹	비율	13.4%	20.4%	13.6%	9.7%	9.1%	33.8%	100.0%
독립	빈도	14	9	20	6	3	8	60
창업형	비율	23.3%	15.0%	33.3%	10.0%	5.0%	13.3%	100.0%
전체	빈도	121	177	132	85	83	353	951
	비율	12.7%	18.6%	13.9%	8.9%	8.7%	37.1%	100.0%

- 국내 편의점 자영업 가맹점주의 일하는 시간대를 조사한 결과, 07시~14시(50.3%), 15시~22시 근무(38.9%), 23시~06시 근무(12.6%) 순으로 확인됨. 편의점 자영업자 중 독립창업형 형태는 23시~06시 심야 근무 비율이 23.3%였음.

[표 4] 국내 프랜차이즈 편의점 가맹 및 점주 근무시간대

		편의점 가맹 및 점주 근무시간대			전체
		07시 ~ 14시	15시 ~ 22시	23시 ~ 06시	
완전	빈도	185	140	51	376
가맹	비율	49.2%	37.2%	13.6%	100.0%
위탁	빈도	269	189	57	515
가맹	비율	52.2%	36.7%	11.1%	100.0%
독립	빈도	24	22	14	60
창업형	비율	40.0%	36.7%	23.3%	100.0%
전체	빈도	478	351	122	951
	비율	50.3%	36.9%	12.8%	100.0%

3) 편의점 자영업 노동은 건강 노동시간인가?

- 국내 편의점 자영업 노동시간을 조사한 결과, 1주일 평균 노동시간이 65.7시간(1일 9.4시간)으로 임금노동자 정규 노동보다 25.7시간 더 일하는 것으로 확인됨. 편의점 자영업자들은 한달 평균 2.4회 정도 휴무를 하고 있어 일과 삶의 균형이 불가능한 구조임.

[표 5] 국내 프랜차이즈 편의점 가맹 노동시간

구분		1주일 노동시간	1일 노동시간	월 휴무일
합계		65.7	9.4	2.4
가맹 형태별	완전가맹	64.7	9.2	2.4
	위탁가맹	65.8	9.4	2.4
	독립창업형	70.2	10.0	2.1
가맹점 위치별	대도심	66.6	9.5	2.4
	이면도로	65.0	9.3	2.4
	특수지	62.3	8.9	2.7
가맹사업주 연령별	20대	61.2	8.7	4.2
	30대	60.8	8.7	3.3
	40대	64.2	9.2	2.3
	50대	68.3	9.8	2.1
	60대	68.2	9.6	1.9
가맹사업주 성별	남성	67.1	9.5	2.3
	여성	63.2	8.9	2.4

3. 정책과제

- 국내 편의점 자영업자의 장시간 노동(65.7시간, 월 2.4회 휴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편의점 의무휴점 및 기타 지정일 조항을 추가하는 것임.
 - 가맹사업법 제2조에서 편의점과 같은 가맹사업에서 가맹본부가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가맹점주의 영업시간을 구속하는 행위로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 보다 구속력 있게 강화 조치 검토.

가맹사업법 및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법률 시행령

- 가맹본부가 ①가맹점주의 점포가 위치한 상권의 특성 등의 사유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심야영업 시간대의 매출이 그 영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저조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간 동안 영업손실이 발생함에 따라 가맹점주가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함에도 이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행위.
- ②가맹점주가 질병의 발병과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의 단축을 요구함에도 이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부당한 영업시간구속’이라고 규정. 이때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심야영업시간대’는 오전 1시부터 오전 6시까지를 의미함(가맹사업법 시행령 제3조).

- 국내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법상(5조, 6조) 가맹본부와 가맹점은 상호간 협력과 공유의 다양한 계약조건이 명시되어 있으나, 가맹본부로부터의 가맹점 종속성은 매우 높은 상황임. 계약거래상 나타날 수밖에 없는 우월적 지위는 매장 운영과 폐점, 영업시간, 매출과 계약거래 관련 제반 모든 사항에 종속되어 있음.²⁾
 -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법(2조)의 취지를 고려하여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을 할 수 없도록 했으나, 현재는 일부 영업지역(도심 오피스 빌딩)과 심야시간대에만 해당될 뿐 명절이나 주요 공휴일 등에는 해당되지 못하는 문제점들이 있음.
- 구체적으로 편의점 자영업자의 삶의 질과 건강권 개선을 위해서라도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편의점 명절 의무휴점’ 조항을 추가(설, 추석 및 기타 지정 요일)하고,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정책 개선이 필요함.
 - 가. ‘동네약국’처럼 편의점 명절 휴점 시, 지역별 개점 편의점 운영(순번제 운영)
 - 나. 시민편의 고려, 일정 거리별로 명절 휴점 시 동네 편의점 운영
 - 다. 예외 편의점 지역 : 공항, 철도, 터미널, 주휴소, 관광지 등
 - 라. 명절 심야영업 시간 단축 확대, 그 밖의 공휴일 등 지정 심야영업 단축 확대

[그림 1] 국내 편의점 정기 의무휴점 및 심야시간 단축 방향 검토(안)

	현 행 규칙 (before)	개 정 규칙1 (after)	개 정 규칙2 (after)
명절기간 영업	특별 규정 없음	의무 휴점제	오전 의무휴점
그 밖의 지정 요일	특별 규정 없음	의무 휴점제	의무 휴점제
심야영업 단축	오전 1시 ~ 오전 6시	0시 혹은 오후 11시 ~ 오전 7시	0시 혹은 오후 11시 ~ 오전 7시

2) 2014년부터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사업법상 편의점 심야영업 규제와 같은 영업시간 변화가 진행된바 있음.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실태조사 결과 가맹점주의 영업시간 자율운영은 사실상 우월적 지위관계의 가맹 계약(프랜차이즈) 속에서는 형식적 제도에 불과한 실정임.

[표 6] 일본 소매업 유통 영업시간 조정 현황

소매업	주요 내용
루미네	2017년 4월부터 전체 점포의 80%에서 폐점시간 30분 앞당김
한큐한신백화점	2017년 4월부터 후쿠오카 지하점포 영업시간 1시간 단축(토,일 제외)
미츠코시이세탄	영업시간 단축 및 정기휴일 도입 단계적 실시
이온	2016년 3월부터 수도권 대형마트 중 전체 점포의 70% 영업시간 단축
이나게야	2017년 1월부터 전체 점포의 약 30% 영업시간 단축
도부스토어	2014~2015년 전체 점포의 약 40% 24시간 영업 폐지

자료 : 日本經濟新聞 등 언론보도를 바탕으로 작성; 鈴木絢子(2017)에서 재인용.

[표 7] 독일 소매업 키오스크 영업시간 조정 현황

독일 16개 지역(주)	주중(월-금)	토요일	일요일	독일 16개 지역(주)	주중(월-금)	토요일	일요일
바덴뷔템부르크	0-24	0-24	휴무	니더작센	0-24	0-24	휴무
베를린	0-24	0-24	휴무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0-24	0-22	휴무
브란덴부르크	0-24	0-24	휴무	작센-안할트	0-24	0-20	휴무
브레멘	0-24	0-24	휴무	슐레스비히-홀슈타인	0-24	0-24	휴무
함부르크	0-24	0-24	휴무	튀링겐	0-24	0-20	휴무
헤센	0-24	0-24	휴무	메클렌부르크	0-24	0-22	휴무